전통문화 정책 개선 '기대'…차별금지법 · 탈핵은 '우려'

공약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특위 공약
전통사찰 보존 위한 변화 기대
불합리한 이중 규제 등 개선도
불교계 숙원과제 상당수 해소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보 입장
10대 공약에 '원전 강국' 우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차기정부가 각 분야에서 어떤 정책기조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오랜 숙원과제였던 전통문화 정책 개선과 종교편향 근절방안, 차별금지법 제정 및 탈핵 · 기후위기 대안에 대한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모습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후보 공약 및 발언을 토대로 차기정부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를 통해 불교 및 전통문화유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위원장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16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조계종 총무원, 관련 기관, 당 내 정책본부 등과 논의해 공약을 구성했다. 주요 골자는 전통사찰 보존 정책의 강화다. 전통사찰에 가해지는 이중규제를 검토해 실질적인 보존전승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개선하고 정책 공백으로 과도하게 부여됐던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 운영상의 고충을 해소해 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해 기존 분리과세 체제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 전통사찰 뿐 아니라 향교나 종중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전통문화유산의 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도 약속했다.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은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항온항습 기능을 가동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이 같은 공익성 목적이 현행법 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일반용 요금체계에 준하는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 왔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이를 사설박물관 및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사업시 사찰의 자부담률도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전통사찰이 전각 등을 보수할 때 통상 전체 예산 가운데 자부담률을 책정해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자부담률 책정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찰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전통사찰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부담률 폐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전통사찰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작 등을 위한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물론, 중복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 국가예산이 투입된 미등기 건축물의 양성화, 전통사찰 경내지의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약들은 전통사찰이 관련 법 제정 이전부터 유지돼 왔음에도 이후 생겨난 법체계와의 괴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법으로 내몰리거나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고충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또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 본부의 신설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이를 보다 효율적 · 종합적으로 보존전승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주목된다.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원하고 문화재 관람료 관련 제도를 정비해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의 확대를 통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사찰림의 공익적인 역할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다 효율적인 보호 ·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과 관련해 문화유산진흥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문화재 분야에서는 불교문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럼에도 전통사찰들은 국립공원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산림법 등 수많은 중첩규제에 묶여 있어 신행생활 측면에서도 숱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도 불교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강요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참회를 먼저 전했다.

이에 "불교는 특정 종교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 자체인 만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 국가적 불교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 · 훼손 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의무사업"이라고 공약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을 근절하기 위해 '종교평화위원회' 신설의지도 밝혔다.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종교평화위원회 신설을 통해 종교편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전통문화 및 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종교편향 대안 마련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는 점에서, 오랜 불교계 고충의 상당수가 차기정부 체제에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반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탈핵,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윤 당선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국민의힘 기독인회가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윤 당선자 역시 선거캠프 공식입장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여론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안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방안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10대 공약의 하나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꼽으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원전 원천기술의 전세계 수출 추진을 약속해 탈핵정책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석탄 기반 중심인 산업체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인 불교 공약은?

1. 전통사찰 보존
- 전통사찰 토지 재산세 · 종부세 감면
- 합산과세 방안 철회(향교 · 종중 포함)
- 문화재 보유사찰 전기요금 교육용 부과
-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시 자부담률 폐지
- 전통사찰 농지 직접 취득 가능
-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종교용지로 변경
-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방안 모색
- 불합리 · 중복규제 개선

2. 전통문화유산 보존
- 문화재청 산하 문화유산본부 신설
- 연등회 전승관 건립
-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 환지본처

3. 국립공원 제도 개선
-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기여도 객관화
- 문화재관람료 관련 제도 정비
- 공원문화유산지구 확대 · 예산 증액
- 사찰림 효율적인 보호 · 보존

4. 종교편향 근절
- 종교평화위원회 신설
- 공무원 종교편향 처벌조항 강화
- 용산공원 복원시 종교형평성 고려

윤석열 당선인에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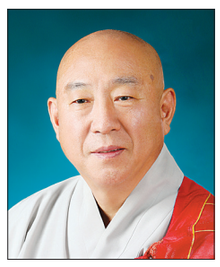
불교 지도자들, '화쟁 · 전통문화 보존' 당부

3월 10일 축하메시지 잇단 발표
원행 스님 "포용의 리더십" 강조

불교계 지도자들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화쟁의 가르침을 통한 상생과 화합,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등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등은 3월 10일 잇따라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축하와 차기정부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하메세지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으로서 포용의 리더쉽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안정,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원행 스님


호명 스님


문덕 스님


도진 정사

원행 스님은 "국민을 위한 공평무사한 정책과 화쟁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은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세계속에 자랑스런 문화민족으로 자리하는 데 앞장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공평무사한 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했다. 호명 스님은 당선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항상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공명정대한 사회, 온 국민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나라가 되도록 공평무사한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우수한 전통문화가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국민 피로가 가중되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은 만큼, 국난극복과 국민 화합 그리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성심을 다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무엇보다 21세기 문화융성의 시대가 더욱 활기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도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던 갈등과 상처를 보듬고 국민만 바라보며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서달라"며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새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진 정사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국정운영과 정치체질 개선으로 헌정사에 빛날 파사현정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화쟁 · 호국불교 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뤄 달라"며 특히 기후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오직 국가와 국민 앞에 성찰하며 크게 소통하고 분별없이 어울리는 평화와 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공존의 의지는 중요한 책무이자 실천"이라며 "대통합을 위한 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송지희 · 노덕현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E-mail** : ds7788@hanmaum.org
-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 **전화** 031)470-3276, 3277
-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 (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